

1. 박홍률(왼쪽 두번째) 목포 시장의 지난 5월 수산식품수출단지 착공 퍼포먼스.



2.

2. 수산식품수출단지 조감도  
3. 마른김거래스 3D 투시도.



# ‘김 산업 특화도시’ 목포, 김 수출액 역대 최고 ‘전국 1위’

### 전년비 123% ↑ 7천691만 달러 기록...김 산업 특화매진 전국 최대 규모 국제 마른김거래스 구축 등 유통 효율성 제고

목포시가 올해 상반기 김 수출액 전국 1위를 차지하면서 김 산업 특화도시로서의 면모를 다지고 있다. 22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의 상반기 김 수출액은 전년 상반기 대비 123% 증가하며 7천691만 달러를 기록,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처음으로 전국 1위를 달성했다.

목포시는 민선 8기 들어 김 가공 기업에 다양한 지원과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활동·홍보를 통해 김 산업 육성에 집중하며 세계시장 주도를 준비해 왔다. 목포시는 (재)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를 전국 최초 해양수산부 제1호 김 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김 산업 특화 전략에 불씨를 당겼다. 센터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을 통해 ‘AI기반 마른김 품질 등급 판별 솔루션 개발 및 실증’사업에 선정됐고, 앞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한 민간 기업과 3년간 45억원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이에 목포시는 수산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한층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김을 비롯한 수산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의 중심에 지난 5월 말 착공

한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이 있다. 수산식품수출단지는 부지 2만8천133㎡의 대양산단 내에 사업비 1천37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4만6천612㎡로 2개동이 건립된다. 수산식품수출단지는 국제 마른김거래스를 비롯해 임대형 가공공장, 냉동·냉장창고, 연구개발 시설 등이 들어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수출 품목 다변화, 수출지원 강화 등 가공, 유통, 수출까지 종합적인 기능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수산식품수출단지 내에 들어설 국제 마른김거래스도 목포시가 주력하는 사업 중 하나다. 마른김 수출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 마른김 시장을 주도할 거래스를 조성하게 되는데, 2026년 개장을 목표로 전국 최대 규모인 739.5㎡의 거래스와 국제회의실, 바이어 상담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마른김 거래의 유통 효율성 제고와 국내·외 바이어를 위한 거래 구심점이 될 예정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김 소비 증가에 따

른 해외 현지 조미김 가공 공장과 중국·일본의 김 생산량 감소로 마른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거래스의 역할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지난 2년간 고부가가치 김 산업 육성에 노력한 결실이 나타나 기쁘다”며 “김 산업 특화도시 목포시를 향한 퍼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도전과 도약으로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 명현관 해남군수 “군정 최대 과제 ‘청렴’ 최우선”

### 전 직원 청렴명찰 전달식도

명현관 해남군수가 청렴을 위한 혁신을 군정의 최대 과제로 설정하고, 업무 추진 시 청렴 실천을 최우선으로 삼자고 강조했다. 22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열린 청렴회의에서 명 군수는 “관행적으로 추진해오던 청렴정책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진심어린 청렴정책 추진을 통해 청렴 노력이 조지 청렴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올해 청렴 멘토제를 비롯해 부서 자체 청렴직원 선정, 부재중 전화 누락 방지를 위한 청렴 메모지, 보조사업 맞춤형 안내 및 탈락자 사후 관리, 사업 착공 시 부조리 신고 안내 강화, 개인 SNS를 통한 청렴 결의, 청렴 칭찬 쿠폰 등 새로운 시책들을 다양하게 추진해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올해 시무식과 함께 첫 번째 군수 지지 사항으로 청렴도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전 부서에서 4개 청렴시책을 발굴해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분기별 시책 추진상황을 재차 점검하고, 우수사례



를 확산해 군민체감도를 높여가고 있다. 명 군수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간부 공무원들의 솔선수범 자세와 함께 사실에 근거한 청렴도 평가 노력, 민원인들에 대한 무한 친절과 성실한 마

음이 필요하다”며 “도내 유일하게 5년 연속 청렴도 2등급을 달성한 해남의 위상에 자부심을 갖고, 청렴도 한단계 도약을 위해 해남군 공직자의 제의 덕목으로 삼고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청렴을 실천하자”고 말했다. 한편, 보고회에 앞서 명현관 군수와 순명도 부군수를 비롯한 전 직원은 앞을 걷기 운동을 하며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고, 청렴한 자세로 일할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청렴명찰 전달식(사진)을 가졌다. /해남=박필용 기자



## 무안 갯벌 습지보호지역 확대

### 기존 합평만서 탄도만까지

무안군은 “최근 환경면 문화복지센터에서 무안갯벌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청회는 기존 합평만 갯벌(42km)에 한정된 습지보호지역을 탄도만까지 확대 지정(113.34km)하기 위해 추진했다. 탄도만은 생태계조사 결과 해양보호 생물인 흰머리참갯지렁이를 포함해 노랑머리참갯지렁이, 저어새, 검은머리 갈매기 등이 서식하고 있어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안=김성호 기자

공청회에는 어촌계를 포함한 지역주민, 해수부, 목포지방수산청,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추진단 및 시군 관계자 등 약 7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습지보호지역 확대 지정 계획 및 보전 계획 청취 후 주민들의 자유로운 질의 응답으로 진행했다. 허재경 무안생태갯벌사업소장은 “이번 공청회에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7월 중 해수부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합평만, 탄도만 갯벌의 우수성과 보전의 중요성을 주민들에게 지속 홍보하겠다”고 지역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무안=김성호 기자

## ‘신안새우난초·흰꼬리수리’ 신안군 新상징물 지정

### 지역 자생 멸종위기종...郡 고유성·자연유산 가치 상징

신안군이 ‘신안새우난초’와 ‘흰꼬리수리’를 새로운 상징물로 지정했다. 22일 신안군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존 군화와 군조를 각각 ‘신안새우난초’와 ‘흰꼬리수리’로 새롭게 변경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신안군의 독자성과 상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기존의 ‘해당화’와 ‘갈매기’를 대신해 신안의 자연과 문화적 가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상징물로 채택했다.

‘신안새우난초’는 멸종위기종 2급 희귀종으로,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으로 등록된 신안군에서만 자생하는 식물이다. 이는 ‘신안’이라는 명칭이 붙은 유일한 생물로, 신안군의 고유성과 자연유산의 가치를 상징한다. ‘흰꼬리수리’는 신안군의 역동성과 독자성을 나타내기 위해 적합한 상징물로,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종 1급으로 지정됐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새우난초는 신안군에서만 자생하는 유일한 식물로



신안새우난초      흰꼬리수리

서 그 상징성과 당위성이 매우 크다”며 “흰꼬리수리는 신안군의 독자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을 더 잘 나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안=양훈 기자

## 합평 ‘청년 창업 지원사업’ 내달 7일까지 모집 연장

합평군은 22일 “청년 창업자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하는 ‘청년스트리트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8월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청년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빈집 등 지역 유휴시설을 새로운 창업 공간으로 개조해 지원하는 이 사업은 올해부터 2년간 총 사업비 22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합평 관내 신규 창업을 희망하는 만 18세(2006년 1월1일 이후 출생) 이상 만 49세(1975년 12월31일 이전 출생) 미만 청년으로, 합평군민 또는 예비 합평군민(사업 시작 후 3개월 이내 합평 거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만 대학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공고일 기준 취업자는 제외된다. 합평군은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2차 면접까지 통과한 최종 합격자에 대해 1년간 ▲지역상권 분석 ▲지역인종 개발 및 발굴 대상 펀딩 지원 ▲지역 로컬산업 온라인 판매 지원 등의 창업 매니저 활동(유급)을 수료하게 할 계획이다. 청년 매니저로 1년 만기 근무한 이후에는 5명을 선정해 1억원 이내 창업에 필요한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합평군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합평=김연수 기자

## 영암군 투명PET병 무인회수기 시범 운영

### 자원순환 앱 ‘수퍼빈’ 1개당 10포인트 적립

영암군은 22일 “영암읍 영암기차시내에 투명PET병 무인회수기 시범 설치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무인회수기(사진) 시범 설치는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 문화 정착, 자원 회수를 제고 등을 위해 추진됐다. 투명PET병 무인회수기는 휴대폰에 자원순환 앱인 ‘수퍼빈’을 깔고 투명PET병을 무인회수기에 투입하면 1개당 10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2천포인트 이상 적립하면 앱에 입력한 개인 계좌로 포인트를 현금으로 교환해 준다. 무인회수기 투입구에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떼 깨끗한 투명PET병을 넣은 뒤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포인트가 적립된다. 자세한 기계 활용법은 무인회수기에서 볼 수 있다. 영암군은 이번에 시범 설치한 무인회수기가 1개월에 800개 이상의 투명P



ET병을 회수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6천200kg의 이산화탄소를 저감해 40그루 이상의 나무를 대체하는 효과다. 영암군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 다음 이용자와 수거량을 종합해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영암=나동훈 기자

## 완도군, 폭염 대비 취약계층 지원

### 전담 T/F팀 구성...응급 서비스

완도군은 22일 “폭염 대응 T/F팀을 구성해 9월 말까지 장애인, 독거노인, 의료급여 대상자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T/F팀은 장애인, 독거노인,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활동 지원, 맞춤형 돌봄, 119와 연계한 응급 안전 서비스 등을 제공해 인명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으로는 먼저 폭염 기간 동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 활동 자재를 당부하고 있으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대상자 108명은 활동지원사가 직접 안전을 챙긴다. 장애인복지관과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냉방기 실내 적정 온도 유지와 응급 상황 관리 체계를 점검

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가정지원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독거노인은 생활지원사와 의료급여 사례 관리사가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무더위 행동 요령(외출 자제, 수분 섭취, 서늘한 곳에 있기)을 안내하고 있다. 만성 질환자의 경우 복약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 지원을 통해 건강관리를 돕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 상황이 우려되는 주거 취약 가구와 전기료 체납으로 단전, 단수된 가구를 발굴해 지원하고,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추교훈 주민복지과장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주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